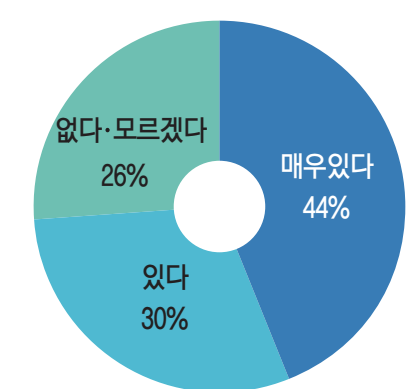


“일자리 있다면 남을 것”…수도권 쏠림 통념 깨졌다



광주지역 기업 취업 의향
(일자리 있을 경우)



광주경총-조선대 취업전략팀, 청년 취업 인식 설문조사

10명 중 7명, 지역 고용 여건 개선되면 ‘정착 가능’ 취업 기피 이유, 낮은 급여보다 ‘전공 일자리 부족’

광주 청년 10명 중 7명은 양질의 일자리만 있다면 지역에 남아 취업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진출이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져 온 기존 인식과 달리, 지역 내 고용 여건이 개선될 경우 청년 정착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23일 광주경제자유총합회와 조선대학교 취업전략팀이 리서치 전문기관 ㈜와이즈 초이스에 의뢰해 재학생 및 지역 청년 307

명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인식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 기업에 일자리가 있을 경우 취업할 의향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3.9%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있다”는 응답이 44.0%, “있다”는 응답이 30.0%로, 지역 취업에 대한 잠재 수요가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청년들이 수도권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대안이 부족

해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을 방증한다.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소득과 경력을 함께 쌓을 수 있는 일자리만 마련된다면 무리한 수도권 진출보다는 지역 정착을 택하겠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는 분석이다.

희망 근무 지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뚜렷했다.

수도권 근무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41.7%였지만 광주(40.4%)와 전남(11.1%)을 포함한 광주·전남 권역 근무 희망 비율은 51.5%로 과반을 넘겼다.

“고향 선호”를 넘어, 지역 내 산업과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이 수치는 지역 일자리의 질적 개선 여부에 따라 청년 유출 흐름이 충분히 반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 선호도가 절대적이라는 통념과

달리, 청년들은 이미 지역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관건은 ‘어디서 일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하며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현실 인식은 냉정했다.

광주지역에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충분하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정적 응답이 38.4%로, 긍정적 응답(27.7%)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지역 내 취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6.6%가 ‘전공 일자리 부족’을 꼽아 낮은 급여 수준(18.9%)이나 지역 기업 인지도 부족(17.3%)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단순한 임금 격차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전공과 역량을 활용해 경력을 쌓을 수 있느냐에 대한 구조적 불안이 청년들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에 일

자리는 존재하지만, 전공과 직무가 맞지 않는 ‘미스매치’가 지속되면서 청년층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지역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강화해야 할 교육으로는 ‘현장 실무 중심 교육’이 43.0%로 가장 높았고 기업 맞춤형 프로젝트(21.5%), 최신 기술(AI·스마트 제조 등) 교육(17.9%)이 뒤를 이었다. 이 큰 위주의 교육보다는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는 요구가 뚜렷하게 반영됐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기업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직무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에는 실무형 인재 양성 커리큘럼을 제안해 지역 고용 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여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RISE센터, 성과 교류회 ‘고교-대학 연계’ 모델 공유

광주RISE센터는 최근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교연계형 지역대학 특성화사업 성과 교류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교-대학 연계 교육을 통해 축적된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사업에 참여한 8개 수행대학을 비롯해 관내 직업계고,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참여기업, 광주RISE센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빛고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의 2025년 성과 발표를 시작으로 ‘나는 자연인이다’의 개그맨 이승운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과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며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후 진행된 성과 보고에서는 광주RISE센터의 사업 추진 성과 및 수행대학별 고교-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성과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간담회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업계고 관계자들의 총평, 교육발전특구사업과 RISE 연계 방안 및 차년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은지 기자 riozyb@gmail.com



“돌아온 ‘여수언니’ 디저트 만나보세요” (주)광주신세계가 기존에 팝업을 진행했던 유튜브 ‘여수언니’가 만든 디저트를 다시 선보여 눈길을 끈다. 신세계는 오는 28일까지 분관 지하 1층 행사장에 ‘봄날엔’ 팝업스토어를 열고 떡과 초콜릿을 다양한 맛의 필링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디저트를 선보인다.

롯데아울렛 수완점, 취약계층에 ‘특별한 선물’

장애인 30명 초청…음식·영화 관람 등 제공

10여년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이 올해도 지역 취약계층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했다.

23일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은 이날 ‘일심동체, 하나되는 우리’라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기념 마음연인잇기 행사를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과 함께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복지관이 선정한 중증 및 독거 장애인 30여명이 초청 받았다.

이들은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을 찾아 아울렛에 위치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롯데시네마로 이동해 최신 개봉작인 ‘주토피아2’를 단체 관람했다.

롯데아울렛 사륜대봉사단도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도움을 제공했다.

최종현 롯데아울렛 광주수완점장은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뜻깊은 연말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경영환경 불확실…위기극복 해법 중요”

박재희 동서대 석좌교수, 광주상의 경제포럼서 강연

“고전은 단순한 옛 글이 아니라 삶의 해답이 담긴 ‘리더의 문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박재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석견학당 원장)는 23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린 광주상공회의소 주관 제286차 광주경제포럼에서 ‘불확실성 시대, 고전에서 배우는 리더의 지혜’ 주제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재희 교수는 국내 최고 동양철학 전문가이자 인문학 멘토다.

박 교수는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라는 대전환기를 이끌었던 공자, 노자, 손자 등 ‘3대 슈퍼스타’의 생각법을 통해 현대 경영자들이 직면한 위기극복의 해법을 제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는 위기를 만나면 열어봐야 할 세 가지 지혜의 주머니로 △궁극 통 △허즉통 △변즉통을 제시했다.

먼저 공자의 ‘궁즉통’을 언급하며 역경이 닳았을 때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회복탄력성과 어려울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군자고공’의 리더십을 강조했다. 이어 노자의 ‘허즉통’을 통해 성공 후 스스로를 비워야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공을 세운 뒤 물러날 줄 아는 지혜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변즉통’을 인용,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빈틈을 노리는 전략과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인용하며 “날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알 수 있듯 어려운 시기일수록 리더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시대를 관통하는 고전의 지혜는 리더들에게 가장 단단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인들이 인문학적 통찰을 경영에 접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혁신의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제포럼은 지역 경제인들의 지식 교류와 네트워킹을 위해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최신 경제 트렌드부터 인문학까지 폭넓은 주제로 지역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PRIMUM LIGHTING SYSTEM

EXVISTA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그 빛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력
빛과 기술을 창조하는 진우엘텍입니다

국내유일 자체생산 및 직접시공 스포츠조명엔 진우엘텍!

“고객이 원하는 고객을 위한 기업 진우엘텍입니다”



진우엘텍 ONE-STOP 서비스

자사의 원스탑 서비스 (One-Stop Service) 를 통해 고객은 조명의 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처리되는 간편한 시스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공정은 직접 처리되는 만큼 서로 정확하게 일원화 되어있어 시공이 끝난 후에도 완벽한 사후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01 고객 상담 및 의뢰	>	02 현장 답사 및 설계	>	03 제품 생산	>	04 직접 시공	>	05 유지 관리
---------------------	---	---------------------	---	----------------	---	----------------	---	----------------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301동 1008호
공장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90
홈페이지 : www.sports-lighting.co.kr

조명설계 및 제품문의
032.329.7160
KOREA NO.1 SPORTS LIGHTING
JINWOO ELTEC